

# “최악의 미세먼지 잡아라”

### 유모차용 공기청정기·창문필터 등 신제품 잇따라 출시 관련 제품 매출 급등에 유통업계 할인행사·마케팅 돌입

최악의 미세먼지가 유모차용 공기청정기까지 등장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자 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유통업계도 앞다퉈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발 빠르게 할인행사에 나서고 있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광주점 8층 유아동 매장 ‘압소바’에서는 최근 신제품으로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아이와 외출할 때 유모차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유모차 커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실내 공간에서 에어토리란 장착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특정 계절이 아닌 연중 영향을 미치면서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거나 새로운 제품을 찾는 현상에 따라 관련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목걸이로 연결해 목에 걸거나 옷깃에 착용할 수 있는 ‘에어비다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방충망에 붙이는 먼지 필터 ‘먼지자바 미세먼지 창문필터’ 등 신제품들도 잇달아 출시되는 추세다.

광주지역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마스크는 지난달에 비해 10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무려 1043%나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샵오미 매장의 에어웨어 등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제품도 1만원을 뛰어넘는 고가의 상품임에도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이마트 역시 올해 들어 ‘KF80’, ‘KF94’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

은 고사양의 마스크 제품이 인기를 끌며 전년보다 328% 매출이 증가했고, 공기청정기도 같은 기간 271%나 매출이 늘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면에 진열하고, 하이마트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관련 가전 제품을 확대하는 등 마케팅에 돌입했다.

우선 롯데백화점 광주점 ‘압소바’는 회원가입을 할 경우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기존 판매가격 8만4000원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삼성큐브’(AX47R9880WFD)를 구입할 경우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2대를 구매할 경우 또다시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33만9000원에 판매 중인 코웨이 공기청정기(AP-1019E)도 4만원 할인하는 등 공기청정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사이트들도 미세먼지 마케팅에 동참하고 나섰다.

G마켓과 옥션, G9는 미세먼지 관련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할인 판매에 나섰다. 미세먼지 관련 상품 기획관을 마련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코세정기 등 관련 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특히, 특정 공기청정기 상품은 당일 발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신세계 TV 쇼핑은 이달 한 달간 전일 예보 기준으로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80㎍/㎥ 이상이면 당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와 핸드워시, 의류관리기 등 미세먼지 관련 용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압소바 매장에서는 신제품으로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유통업계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자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행사에 돌입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재미없는 사탕은 가라” 편의점 마케팅 대전

### 화이트데오리·젤리세트 등 재미·복고 더한 제품 다양

편의점 업계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6일 일제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에 들어갔다. 화이트데이는 연인은 물론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중저가 상품을 확대하고 최근 사랑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젤리 상품 비중도 늘렸다.

편의점 CU(씨유)는 영화배우 김보성의 모델로 내세우고 ‘화이트데오리’ 프로모션을 펼친다.

‘화이트데이’와 ‘의리’의 낱말 합성을 통해 연인은 물론 친구와 동료 등에게도 가벼운 선물로 의리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표현했다. 기획상품을 구매하면 스티커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인기를 끌었던 미니 에코백 상품 2탄으로 ABC 초플러팅과 미니 에코백을 묶은 상품도 출시했다.

중저가 상품의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1만원 미만 실속형 상품을 강화하고 버거모양 젤리를 햄버거 박스에 포장한 제품 등도 단독으로 내놓았다.

GS25는 개그맨 신봉선과 손잡고 ‘상상도 못 한 캔디’를 준비했다. 유행재를 모델로 해 1990년대 잡지

표지를 본뜬 패키지 상품 등 재미를 더한 제품을 준비했다.

화이트데이에 젤리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기 젤리 상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손바닥만한 크기의 골드피그젤리와 하리보 곰인형세트 등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도 사탕 대신 젤리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짱셔요빅요구르트젤리’ 등 다양한 맛과 모양의 젤리 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돼지모양 젤리로 구성된 ‘복돼지젤리’와 상어, 에펠탑 등 다양한 모양의 젤리로 구성된 ‘위니비니젤리세트’ 등도 새로 내놓았다.

행사상품을 구매하고 세븐일레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스탬프를 적립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목걸이를 증정한다.

미니스톱은 복고를 새롭게 재해석한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어릴 적 추억의 간식이었던 사랑방 캔디 등 복고 상품을 선보였다.

1980~1990년대 과자 선물세트 디자인을 따서 만든 종합선물세트와 철수·영희를 패키지 전면에 내세운 ‘뉴트로 커피’는 물론 맛기차콘, 호박꿀나 등 추억의 과자를 한데 묶은 상품도 출시했다. 친구나 회사 동료를 위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상품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 해외에서 ‘한 달 살기’

### 3년새 2배 증가...방콕 1위

‘한 달 살기’가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해 항공권 인아 웃이 같은 도시에 29~31일간 체류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1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한 달 살기’ 수요에 올해 인터파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여행지는 태국 방콕이었다.

이어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찌민, 필리핀 클락, 베트남 하노이 등 순으로 장기간 머무는 만큼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 오늘은 ‘삼치·참치데이’...롯데마트 최대 40% 할인 판매

### 13일까지 진행

롯데마트는 ‘참치·삼치 데이’를 맞아 7일부터 13일까지 삼치와 참치를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참치·삼치 데이’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가 두 생선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발음이 비슷한 3월 7일로 지정한 날로, 올해 14년째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물량을 사전 비축해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나뚜루, 7년만에 자연주의 옷 다시 입다

### 품질 고급화·마케팅 강화

롯데제과는 6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나뚜루의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2011년 롯데GRS 시절 ‘나뚜루POP’으로 리뉴얼을 한 지 7년 만의 조치로, 1998년 출시 당시 브랜드명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뚜루는 1998년 롯데제과가 자연주의 콘셉트로 선보인 뒤 2011년 롯데GRS로 소속을 옮기면서 ‘나뚜루POP’

으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1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한 바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6월 롯데GRS로부터 다시 나뚜루를 넘겨받은 뒤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초의 자연주의 슬로건을 내세우기로 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로고와 포장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품질 고급화도 추진했다.

롯데제과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